

조슈아 이코나의 간증

안녕하세요, 원보이스 패밀리입니다. 3일 후에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이다. 가기 전에 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계속해서 저를 도우셨는지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22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았다.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놓으려고 해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두 명의 훌륭한 부모와 두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갔고, 주일학교가 뒤를 이었고, 주중에는 사립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 이 중 어느 것도 나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 다. 나는 그때 나를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옮겼다.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런 친구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10살이 되자 나는 욕하는 습관을 들이고 외설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던 우연한 건물 같았다. 나는 내 믿음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나를 따르고 계셨다. 내가 신에게서 몇 마일 떨어져 있다고 느꼈을 때에도 이제 나는 그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에베소서 1:11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았고

이는 그가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조정하는 방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증오와의 싸움입니다. 특히 형 요시아에 대한 증오심. 2014년 5월의 어느 날을 기억한다. 중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동생이 마약을 해서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싸움이 많았다. 끊임없는 논쟁과 큰 소리가 났고, 형은 종종 집에서 쫓겨났 습니다. 나는 겨우 14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에 참여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가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형과 단둘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거부감이 들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너무 외로웠다. 나는 종종 가족과 친구들과로부터 나 자신을 고립시켰다. 나는 속으로 화를 많이 내서 동생에게 쏟아 부 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병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국 형과 나는 2년 동안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2년 동안 내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그대로 유지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의 증오가 퍼졌고, 그것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끔찍한 말

을했고 내가 그들을 많이 아프게해도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내 마음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추함을 보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행동을 반성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았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전자담배, 대마초, 자해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더러워지고 주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그를 거역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는 고통을 다루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의 이 구멍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정신 건강이 나빠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마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돌보는 방법, 나의 약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종종 "나는 내 삶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데 왜 매일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은 내 정신 건강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와 싸우고 있다는 뜻이겠죠? 즉, 내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 큰 문제는 내 마음의 구멍이었습니다. 내가 치료에서 배운 어떤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약 1년 후, 우리 교회에서 "Sonship"이라는 수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파괴로 가득 찬 관계입니다.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나의 과거 행동을 다시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구멍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마음이 굳어 아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예전 같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선하다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제 마음의 현실이었습니다. 내 교만을 제쳐두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내가 신뢰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과 의심의 기간은 내가 19세였을 때부터 올해 초 22세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서 2:14-18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14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요 혈육으로 지음이니 아들도 혈육이 되셨느니라.

인간으로서만 죽을 수 있고, 죽어야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 이렇게 해야만 평생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중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16 우리는 또한 그 아들이 천사들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의 형제 우리와 같이 되실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 그는 백성의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18 그가 고난과 시험을 친히 겪으셨으니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나는 17살이었고 회개하고 싶지 않았을 때 이 구절을 나 자신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읽는 것은 강력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내밀어 나를 붙들고 있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움, 교만, 완고함, 완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나의 가장 강력한 관계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거부했을 때에도 그 관계는 강하고 확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에서 멀리 도망치려고 할 때, 주님은 내 기독교 친구들을 통해 내게 손을 붙드셨습니다. 내 질문과 어려움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만든 삶이 진정으로 자급자족이 아니며 실제로 자멸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은혜롭게 부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었다. 내 인생에서 나는 22년 동안 거의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나는 주님이 자신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존심, 고집, 공감 부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도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생에서 직면하게 될 그 어떤 도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교회 가족이 되어주신 One Voice Fellowship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기억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학교에 갈 때 여러분 모두가 그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곧 다시 방문하기를 희망합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뒤덮이고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고 느끼는 날들에 대한 격려이자 일깨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뒤에서 따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와서 쉬도록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